

의안번호	제398호
의결 연월일	년월일 (제411회)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9월 7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

의안 번호	398
----------	-----

제안연월일 : 2023. 9. 7.

제안자 :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주 문

-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및 추가 도입되는 전투기의 청주국제공항 배치 계획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함.

□ 제안이유

-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 같은 별칭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활주로 하나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였음.
- 민군복합공항으로 공군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민간 항공사의 항공운행이 제한을 받고 있음.
- '97년 이래 활주로 연장·슬롯 확대가 이루어진 바 없는 청주국제공항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단 하나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국방부는 F-35A 20대의 청주국제공항 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음.
- 이에 충북도의회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추가 도입 전투기의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배치 계획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붙임 건의안 1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

1997년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 잡아 중부권 국민 1천만 명이 이용가능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불려 왔고, 세종시가 들어선 뒤로는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이라는 별칭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활주로 하나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공항으로 공군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에서 민간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는 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 항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은 시간당 6~7회에 불과하여 여객항공운송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활주로 길이도 부족하여 대형항공기 이착륙에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개항 이래 활주로 연장이나 슬롯 확대가 이루어진 바 없는 청주국제공항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단 하나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충북은 활주로 연장이나 개량은커녕, 항공기를 세워둘 주기장도, 여객수요증가에 대비할 여객터미널도 확충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컨대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국방부는 F-35A 20대 추가 도입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면 추가 도입된 F-35A는 청주국제공항 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배치될 것이고, 이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항공기 운행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청주국제공항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청주국제공항을 살려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를 민간 전용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 신설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하나, 활주로 연장 및 개선, 주기장·여객터미널 확충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즉시 반영하여 주십시오.

하나,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의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배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2023. 9. 19.

충청북도의회